

유아의 교육기관 부적응행동에 대한 유아 및 어머니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The Effects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Maternal Variables on Children's Maladjustment Capacity*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전공
조 교수 서소정
박사과정 하지영

Child & Family Major, Kyung He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o Jung Seo

Doctoral Student : Ji Young Ha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sonal traits of children's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ose of mothers' on the children's maladjustment behaviors. The study subjects were 345 preschooler-mother pairs. Results revealed that boys exhibited more maladjustment behaviors than girls, as expected. The results of a three way ANOVA analyses indicated that the multiple interactive factors of the children's temperament, cognitive outcomes, and parenting attitudes significantly affected the children's maladjustment behaviors. This trend was only representative across the sample of boys. In this study, the interaction effects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 children's lower levels of cognitive development on the children's maladjustment capacity were accentuated among boys with temperamental vulnerability.

주제어(Key Words): 부적응행동(maladjustment behavior), 기질(temperament), 인지·언어발달(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양육태도(parenting attitude)

Corresponding Author : So Jung Seo, Child & Family Major, Kyung Hee University, 11-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947 Fax: +82-961-0538 E-mail: seosojun@khu.ac.kr

* 본 논문은 경희대학교 2006년도 연구비 지원의 결과임(Khu-20060441).

I. 서론

유아의 성장과 발달은 유아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유아 자신은 타고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발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Scarr & McCartney, 1988). 최근 유아의 부적응행동을 유아 자신의 개별적인 특성인 기질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부적합성(poorness of fit)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유아가 속한 환경적 맥락 속에서 개별 유아에게 요구되는 요구나 기대감이 다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관련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아의 행동발달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생태학적 환경인 가정환경 이외에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수가 1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여성가족부, 2006). 이러한 학령기 이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참여율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시작 연령도 점차적으로 하향화되고 있는 현상은 유아가 부모 이외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이후 성장과 발달에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송진숙, 권희경, 2003; 안선희, 2002; 이영숙, 서소정, 2006). 하지만 교육기관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들, 특히 부모와의 격리에서 오는 불안감, 낯선 상황에서 낯선 사람과의 관계 형성, 또래 및 집단생활에서 요구되는 규칙준수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기대감으로 인해 유아들은 여러 가지 긴장과 불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송진숙, 권희경, 2003; 안선희, 2002; 이영숙, 서소정, 2006).

유아의 기관 부적응에 관한 문제들은 이미 많은 국내외 연구들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으며, 이들 관련 연구의 흐름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유아기 동안의 성공적인 교육기관의 적응은 유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 만족감, 대인관계에서의 중요한 지표가 되며(송진숙, 2004; 송진숙, 권희경, 2003; 안선희, 2002; 이영숙, 서소정, 2006), 반면에 낯선 사람들과 낯선 상황에서 원만하게 적응하지 못할 경우 이후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또래보다 미숙한 행동을 보이는 등의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송진숙, 권희경, 2003; 옥경희, 김미혜, 천희영, 2002). 또한 교육기관에서의 부적응행동은 사회적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송진숙, 권희경, 2003), 국외

극소수의 종단연구에서도 유아기 부적응행동은 초등학교 이후의 공격성, 문제행동, 비행 등의 선행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Ladd & Price, 1987; Shaw, Keenan, & Vondra, 1994).

다른 차원에서는 유아의 부적응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고, 특히 유아 개인 및 환경적 변인들이 교육기관 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유아 개인적 특성변인들 중 유아의 성별을 제외하고는 유아의 교육기관 부적응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는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유아의 개별 특성변인 중 성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취원 초기 기관 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에서는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고명순, 1997; 원영미, 1990; 이영숙, 서소정, 2006; 임말자, 최경순, 2003). 유아의 연령이 적을수록 기관적응이 어렵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원영미, 1990; Klein, 1982)가 있는 반면에,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자율성 및 자기주도성이 강해져서 기관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상반된 보고(김민아, 이재신, 2004)도 있다.

유아의 취원기간과 교육기관의 부적응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유아가 대리 양육자 또는 기관에서의 타인 양육을 경험한 기간이 길수록 정서·사회적 문제행동이 적었다는 보고(조혜진, 이기숙, 2004)가 있는 반면에, 유아의 기관 부적응행동과 이전의 취원기간과는 무관하다고 나타난 연구결과들도 있다(Marturano, 1981). 초기의 관련 연구에서는 교육 또는 보육기관경험의 유무에 초점을 두고 유아의 부적응행동을 포함한 정서 행동발달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면, 최근 연구의 경향은 교육 또는 보육 기관경험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유아가 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기관 경험을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 기관을 얼마나 옮겨 다녔는지, 교육 또는 보육의 형태가 어떠한지 등 보다 세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유아의 부적응행동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지만, 그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NICHHD, 2003).

유아의 개별 특성 중 기질은 유아의 기관 부적응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변수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유아가 순한 유아에 비해 적응력이 낮다는 사실은 이미 선행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바가 있다. 다만, 기질을 구성하는 차원 중 활동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아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들(Klein, 1982; Parker-Cohen, & Bell, 1988)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유아의 활동성

이 높을수록 부적응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김영희, 1996; 임말자, 최경순, 2003; 홍계옥, 2001)도 있다.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기관 부적응행동과의 관련성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아의 언어 및 인지능력은 유아가 속한 집단의 사회생활에서 기대되고 요구시 되는 행동을 준수하고 내면화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에 대해서는 유아의 인지능력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인지능력과 문제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황해신, 황해정, 2001),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인지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 연, 한태숙, 정인희, 박연경, 황해정, 구현아, 2006). 유아의 문제행동과 기관 부적응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연장선상에서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과 유아의 기관 부적응행동과의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을 검증할 실증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유아의 가정환경 변인 중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기관부적응 행동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권일선, 1995), 또는 통제적이고 권위적일수록(송진숙, 2004; 유우영, 이 숙, 1998) 유아가 부적응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아의 성별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제외하고는 유아의 기관 부적응행동에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일관되지 않은 선행 연구결과들을 해석하는데 있어 유아가 속한 집단상황의 특수성, 개별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정도, 유아-가정 및 주변 환경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영향력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이영숙, 서소정, 2006).

유아기 기관 부적응이 이후 학령기 문제행동, 공격성에 중요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초기 접근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유아의 기관 부적응행동의 관련 변인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탐색하고,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이 유아의 부적응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기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 각각의 개별 요인들이 유아의 기관 부적응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아가 처한 가정과 교육기관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변인들 간의 유기적이며 역동적인 관계를 유아 및 가정변인의 특성에 따라 심도 있게 파악하여 유아 기관 부적응행동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초기의 교

육적 개입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는 유아의 부적응행동 유형을 구분하는 범주에 관한 일치된 견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측면에 국한되어 평가하여 왔다. 유아기 기관 부적응행동 개념을 보다 폭넓은 영역에서 세분화하여 관련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유아의 성별과 기관 부적응행동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다양한 유아 및 가정 특성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이러한 관련성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패턴을 보여주는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유아의 성별에 따라 기관 부적응행동에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련성 및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향후 교육현장에서의 교육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부적응행동에 대한 유아의 특성 및 가정변인 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특성변인으로서 유아의 기질,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 주요 가정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의 기질,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교육기관 부적응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의 기질,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교육기관 부적응행동 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 연구문제 3.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관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및 가정변인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재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4세, 만 5세, 만 6세 유아 345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193명(55.9%), 여아가 152명(44.1%)이었으며, 연령은 만 4세 유아가 41명(11.9%), 만 5세 유아가 163명(47.2%), 만 6세 유아가 141명(40.9%)이었다. 한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닌 기간은 1년

〈표 1〉 연구대상 유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45)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유아 변인	유아의 성별	남아	193	55.9
		여아	152	44.1
	유아의 연령	만 4세	41	11.9
		만 5세	163	47.2
		만 6세	141	40.9
	취원기간	1년 이하	58	16.8
		2 ~ 3년	158	45.8
		4년 이상	129	37.4
	대리 양육자 또는 교육기관 변경횟수	2회 이하	132	38.3
3 ~ 4회		67	19.4	
5회 이상		43	12.4	
변경한 적 없음		103	29.9	
어머니 변인	어머니의 연령	30세 이하	26	7.5
		31 ~ 35세	151	43.8
		36세 이상	113	32.8
		무응답	55	15.9
	어머니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185	53.6
		대졸 이상	125	36.2
		무응답	35	10.1
	어머니의 취업유무	취업모	129	37.4
		비취업모	213	61.7
무응답		3	.9	

이하인 유아가 58명(16.8%), 2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가 158명(45.8%), 4년 이상인 경우가 129명(3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 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변경한 횟수는 2회 이하인 경우가 132명(38.3%), 3회 이상 4회 이하인 경우가 67명(19.4%), 5회 이상인 경우가 43명(12.4%)이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은 30세 이하의 어머니가 26명(7.5%), 31세 이상 35세 이하인 어머니가 151명(43.8%), 36세 이상인 어머니가

113명(32.8%)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185명(53.6%), 대졸 이상이 125명(36.2%)이었다. 또한 취업모가 129명(37.4%), 비취업모가 213명(61.7%)으로 비취업모가 다소 많았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 유아의 기관 부적응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표 2〉 각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 수 및 신뢰도

요인	하위영역	문항 수	신뢰도(α)
기질	자극추구: 탐색적 흥분, 충동성, 무절제, 자유분방	15	.74
	위험회피: 예기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 쉽게 지침	16	.76
	사회적 민감성: 정서적 감수성, 애착도, 의존성	12	.62
	인내력: 지속력, 끝마침	12	.62
양육태도	긍정적 양육태도: 애정, 자율	24	.82
	부정적 양육태도: 거부, 통제	24	.72
언어 및 인지발달	언어표현	5	.72
	언어이해	2	.82
	사회적 언어발달	3	.81
	수에 대한 이해	3	.74
	수와 시간 개념	3	.75
	시간-행동 및 사건 연계 이해	3	.76
부적응행동	공격, 반사회적 행동, 대인관계의 어려움, 반항, 신뢰성 부족, 위축, 버릇, 발성습관, 나쁜 습관, 과잉활동수준, 증후적 행동	38	.87

여 여러 관련 척도들을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척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각 내용에 관한 요약은 아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1) 유아의 기질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만 3-6세 유아용 기질 및 성격 검사'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만 3-6세 유아용 기질 및 성격 검사'는 Cloninger의 생물학적 이론을 토대로 구성된 미국의 Preschool TCI(Constantino, Cloninger, Clarke, Hashemi, & Przybeck, 2002)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이영숙과 서소정(2006)의 연구에서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의 총 4개 영역에 걸쳐 5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질 척도를 사용한 결과, 4가지 상위요인에 관한 종합적인 신뢰도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 (Cronbach's $\alpha = .62 \sim .72$).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에 관련된 4개 영역 55문항의 기질 척도를 사용하여, '맞지 않음'의 0점부터 '맞음'의 3점 Likert식 척도로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에 해당하는 기질 특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자극추구'는 탐색적 흥분, 충동성, 무절제, 자유분방 등에 관한 15문항으로 구성되며, '위험회피'는 예기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 쉽게 지침 등에 관한 16문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회적 민감성'은 정서적 감수성, 애착도, 의존성 등에 관한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내력'은 지속력, 끝마침 등에 관한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신뢰도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자극추구 $\alpha = .74$, 위험회피 $\alpha = .76$, 사회적 민감성 $\alpha = .62$, 인내력 $\alpha = .62$ 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Schaefer, Bell과 Bayley(1959)에 의해 개발된 어머니 양육태도 측정도구(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번역·수정한 이원영(1983)의 어머니 양육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를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였으며, '긍정적 양육태도'는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에 관한 24문항으로 이루어지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거부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에 관한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Likert식 척도로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어머니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고려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해당하는 양육행동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 영역별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긍정적 양육태도 $\alpha = .82$, 부정적 양육태도

$\alpha = .72$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3)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

본 연구대상의 언어 및 인지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승국(1990) 연구에서 사용된 유아의 긍정적인 기관 적응행동 척도의 주요 하위영역에 속하는 언어발달과 '수와 시간'에 관련된 문항들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 하위영역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언어발달' 영역은 총 10문항에 걸쳐 언어 표현(쓰기, 구두 표현, 발음, 낱말의 사용 - 5문항), 언어 이해(읽기, 복잡한 지시 이해-2문항), 사회적 언어 발달(사회적 대화, 설득전략 사용, 다방면의 언어 발달 - 3문항)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교사가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각 항목에 표시된 점수를 합산하여 각 영역별 총점을 합산하였다. 예를 들자면, '언어 표현'에 해당하는 문항 중 구두 표현 능력이 해당하는 다음의 5가지 항목, 즉 배고픔을 나타내기, 가리키거나 소리를 내어 원하는 것을 표시하기, 만족스러울 때 웃기, 소리를 내어 기쁨과 화남을 표현하기에 모두 해당할 경우 '5점', 말을 할 수 있으면 '6점' (제시된 다른 5항목과 관계없이), 제시된 항목 중 하나라도 표현하지 못하면 '0점'으로 평정하였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14점에서 40점으로 나타났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언어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영역별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언어 표현 $\alpha = .72$, 언어 이해 $\alpha = .82$, 사회적 언어발달 $\alpha = .81$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유아의 인지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승국(1990)의 긍정적인 기관 적응행동 척도의 하위영역에 속하는 '수와 시간'에 관련된 문항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9문항에 걸쳐 수에 대한 이해(간단한 덧셈과 뺄셈, 10 이하 수세기, 일대일 대응하여 수세기 - 3문항), 시간개념 이해(시계 읽기, 시간 간격 이해하기, 시계의 시간 - 행동 및 사건 연계 짓기 - 3문항), 요일이나 아침, 저녁의 개념을 이해하기(3문항) 등을 측정하고 있다. 본 척도의 평정은 각 문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1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인지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교사가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각 항목에 배정된 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영역별 총점으로 산출하였다. 예를 들자면, '수에 대한 이해' 영역에서 간단한 덧셈과 뺄셈이 가능한 경우에는 '4점', 10개 이상의 물건을 셀 수 있을 경우에는 '3점', 10까지 기계적으로 셀 수 있을 경우에는 '2점', 두 개의 물건을 셀 수 있을 경우에는 '1점', 수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0점'으로 평정하였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2점에

서 12점으로 나타났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유아의 수와 시간 개념 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영역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수에 대한 이해 $\alpha = .74$, 시간개념 이해 $\alpha = .75$, 시간 - 행동 및 사건 연계 이해 $\alpha = .76$ 으로 나타났다.

4) 유아의 교육기관 부적응행동

본 연구에서 유아의 기관 부적응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승국(1990)의 적응행동척도 및 이영숙(2006)의 기관 부적응행동 검사 도구를 참조하여 사용하였다. 김승국(1990)의 검사도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유아의 적응행동을 측정하고자 개발되었으며, 이는 유아의 기관 적응행동의 부정적 차원(11개 영역, 총 33문항)과 긍정적인 적응행동 차원(9개 영역,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승국(1990)의 유아의 기관 적응행동의 부정적 차원의 척도를 사용한 이영숙(2006)의 연구에서도 종합적인 신뢰도 분석의 결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보고되었다(Cronbach's $\alpha = .84$).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관 부적응행동과 관련해서 이영숙(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11개 영역(공격, 반사회적 행동, 대인관계예법의 어려움, 반항, 신뢰성 부족, 위축, 버릇, 발성 습관, 나쁜 습관, 과잉활동수준, 증후적 행동)에 걸쳐 총 38개 문항으로 구성된 유아 기관 부적응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영역의 대표적인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공격(예: 위협하거나, 물리적인 폭행을 한다), 반사회적 행동(예: 다른 사람이 가지고 노는 물건들을 여기저기 건드린다), 대인관계의 예법의 어려움(예: 다른 사람에게 매달려 가지 못하게 한다), 반항(예: 지시, 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한다), 신뢰성 부족(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위축(예: 접근하거나 접촉하기를 어려워한다), 과잉활동수준(예: 방 안에서 계속 뛰어다니거나 강충강충 뛰다), 증후적 행동(예: 좌절되었을 때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을 들 수 있다.

본 척도는 교사가 대상 유아에게 해당하는 문항에 대하여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그 문항이 '가끔' 나타나는 것이면 '1' 점, '자주' 나타나는 것이면 '2' 점, '전혀 나타나지 않음'인 경우에는 '0' 점으로 처리하였다. 하위영역별 총점은 각 하위영역에 속한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였으며, 영역별 총점은 각 영역에 속한 모든 하위영역의 총점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에서는 서울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교사 및 어머니를 4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는 부모가 평정하게 하였고, 유아의 교육

기관 부적응행동 검사,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 검사는 담임교사가 평정하게 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은 제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검사지를 작성하여 유아교육 전문가 3명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 사용하였다.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부적응행동 검사는 담임교사가 유아의 기관 적응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학급 편성 후 최소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 및 경기도 지역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4세, 만 5세, 만 6세 유아를 자녀를 둔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2006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두 달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기질 및 양육태도 측정은 부모용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부적응행동,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 측정은 교사용으로 제작된 설문지 500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자료는 부실기재를 제외하고 부모용과 교사용이 쌍이 되는 총 345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11.0 Program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추가로 *t*-검증을 통해 남녀 유아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사용하였고,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삼원변량분석 및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Ⅲ. 연구결과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주요 연구변인들에 대한 차이 검증

〈표 3〉에서 제시된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유아의 기질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점에서 3점까지였으며, 자극추구의 평균은 1.22($SD = .50$), 위험회피의 평균은 1.17($SD = .49$), 사회적 민감성의 평균은 1.73($SD = .42$), 인내력의 평균은 1.80($SD = .46$)이었다. 남아와 여아를 비교해 볼 때, 자극추구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 = 3.06, df = 343, p < .01$), 남아($M = 1.29, SD = .47$)가 여아($M = 1.12, SD = .52$)에 비해 자극추구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민감성 차원에서도 남녀 유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 = -2.10, df = 343, p$

(표 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기관 부적응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N=345)

변인	범위		M (SD)			t
			전체 (N=345)	남아 (N=193)	여아 (N=152)	
유아의 기질	자극추구	.13~2.53	1.22 (.50)	1.29 (.47)	1.12 (.52)	3.06**
	위험회피	.00~2.81	1.17 (.49)	1.18 (.50)	1.17 (.47)	.23
	사회적 민감성	.50~2.92	1.73 (.42)	1.69 (.42)	1.79 (.42)	-2.10*
	인내력	.42~2.92	1.80 (.46)	1.80 (.45)	1.81 (.48)	-.13
어머니의 양육태도	긍정적 태도	2.67~4.71	3.68 (.36)	3.67 (.76)	3.70 (.68)	-.70
	부정적 태도	2.00~4.08	3.20 (.33)	3.19 (.63)	3.22 (.68)	-.84
유아의 언어 및 인지 발달	언어발달	14 ~40	30.19 (5.04)	29.51 (5.21)	31.06 (4.69)	-2.86**
	수와 시간 개념	2~12	7.38 (2.02)	7.28 (1.98)	7.50 (2.06)	-.98
유아의 부적응행동		.00~47.00	8.99 (8.33)	10.51 (8.65)	7.05 (7.50)	3.90***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유아의 부적응행동 하위영역의 평균과 표준편차

(N=345)

변인	범위		M (SD)			t
			전체 (N=345)	남아 (N=193)	여아 (N=152)	
유아의 부적응행동	공격	0~18	2.49 (3.08)	3.13 (3.24)	1.67 (2.65)	4.49***
	반사회적 행동	0~16	3.46 (3.23)	3.87 (3.24)	2.95 (3.15)	2.64**
	반항	0~16	1.88 (2.50)	2.29 (2.78)	1.36 (1.96)	3.51***
	신뢰성 부족	0~5	.77 (1.10)	.85 (1.13)	.65 (1.06)	1.71
	위축	0~14	1.16 (1.79)	1.22 (1.85)	1.08 (1.72)	.74
	버릇	0~12	.59 (1.26)	.75 (1.47)	.39 (.89)	2.60***
	대인관계의 어려움	0~4	.34 (.80)	.37 (.83)	.31 (.77)	.74
	발성습관	0~4	.53 (.87)	.68 (.99)	.33 (.62)	3.86***
	나쁜 습관	0~14	1.15 (1.83)	1.36 (2.00)	.89 (1.57)	2.38*
	과잉활동수준	0~7	.71 (1.26)	.82 (1.37)	.56 (1.11)	1.94
	증후적 행동	0~26	5.56 (4.51)	5.99 (4.84)	5.01 (4.01)	2.01*

* $p < .05$. ** $p < .01$. *** $p < .001$.

<.05), 여아($M = 1.79, SD = .42$)가 남아($M = 1.69, SD = .42$)에 비해 사회적 민감성이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경우, 긍정적 태도는 평균 3.68($SD = .36$)이었고, 부정적 태도는 평균 3.20($SD = .33$)이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남녀 유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언어 및 인지 발달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유아의 언어발달은 14점에서 40점까지의 넓은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30.19($SD = 5.04$)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발달은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 = -2.86, df = 343, p < .01$), 여아의 언어발달 점수($M = 31.06, SD = 4.69$)가 남아의 점수($M = 29.51, SD = 5.21$)보다 더 높았다. 수와 시간 개념은 2점에서 12점까지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7.38($SD = 2.02$)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부적응행동은 0점에서 47점까지 넓은 범위를 보

였으며, 평균 8.99($SD = 8.33$)로 나타났다. 또한 남아와 여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 = 3.90, df = 343, p < .001$), 남아($M = 10.51, SD = 8.65$)가 여아($M = 7.05, SD = 7.50$)에 비해 부적응행동의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부적응행동의 11개 하위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으며, 남아와 여아 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적응행동의 하위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특히 공격($t = 4.49, df = 343, p < .001$), 반사회적 행동($t = 2.64, df = 343, p < .01$), 반항($t = 3.51, df = 343, p < .001$), 버릇($t = 2.60, df = 343, p < .001$), 발성습관($t = 3.86, df = 343, p < .001$), 나쁜 습관($t = 2.38, df = 343, p < .05$), 증후적 행동($t = 2.01, df = 343, p < .05$)의 하위영역 점수에서 남녀 유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적응행동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전체 유아의 부적응행동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3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1. 성별 ¹⁾	-															
2. 연령	.01	-														
3. 취원기간	.00	.07	-													
4. 기관 변경횟수	.11	-.07	-.06	-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5. 연령	-.02	.02	.11	-.04	-											
6. 교육수준 ²⁾	-.02	-.04	.04	.05	.12	-										
7. 취업유무 ³⁾	.02	.06	-.17**	-.01	-.19**	-.03	-									
유아의 기질																
8. 자극추구	-.16**	.02	.06	-.02	-.07	-.02	.01	-								
9. 위험회피	-.01	.05	.05	.08	.08	.02	.00	.19**	-							
10. 사회적 민감성	.11*	-.04	.06	.02	-.08	.11**	.00	.25***	-.11*	-						
11. 인내력	.01	-.05	.01	-.00	-.03	.05	-.00	-.37***	-.22***	.19***	-					
어머니의 양육태도																
12. 긍정적 태도	.04	-.17**	.05	-.11	-.06	.12*	.04	-.23***	-.39***	.32*	.34***	-				
13. 부정적 태도	.05	.10	.06	-.10	-.03	-.09	.05	.28***	.10	.06	-.03	-.17**	-			
유아의 언어 및 인지 발달																
14. 언어 발달	.15**	.20***	.00	-.14*	-.01	.09	.10	-.15**	-.13*	.21***	.17**	.29***	-.01	-		
15. 수와 시간 개념	.05	.39***	-.03	-.16*	-.08	.08	.13*	-.09	-.15**	.10	.12*	.20***	.02	.67***	-	
유아의 부적응행동																
16. 부적응행동	-.21***	-.09	.10	-.02	-.09	.07	.02	.50***	.17**	.06	-.28***	-.14*	.15**	-.15**	-.12*	-

¹⁾ dummy 변수로 처리하였음(1: 남아, 2: 여아).

²⁾ dummy 변수로 처리하였음(1: 고졸 이하, 2: 대졸 이상).

³⁾ dummy 변수로 처리하였음(1: 취업모, 2: 비취업모).

* $p < .05$. ** $p < .01$. *** $p < .001$.

2. 유아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전체 유아의 부적응행동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언어·인지 발달과 유아의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성별이 부적응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r = -.21, p < .001$),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적응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유아의 부적응행동과 어떠한 상관관계도 보이지 않았다.

유아의 기질과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성향은 부적응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 .50, p < .001$; $r = .17, p < .01$)를, 인내력은 부적응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28, p < .001$)를 나타내었다. 즉 유아가 자극추구 성향이 강할수록, 위험회피를 많이 할수록,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부적응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부적응행동과 유

의한 부적 상관관계($r = -.14, p < .05$)를 나타내었으며,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적응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 .15, p < .01$)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지닐수록 그 자녀는 부적응행동을 덜 나타내었으며,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어머니의 자녀는 부적응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언어발달과 수와 시간 개념은 부적응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 = -.15, p < .01$; $r = -.12, p < .05$). 즉 유아의 언어발달 정도 또는 수와 시간 개념 발달 정도가 높을수록 부적응행동을 덜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2) 남아의 부적응행동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남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남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남아의 언어·인지 발달과 부적응행동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6〉과 같다. 남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남아의 부적응행동과 어떠한 유의한 상관관계도 나타내지 않았다.

남아의 기질 중에서는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성향이 부적응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 .48, p < .001$; $r = .25, p < .001$)를 나타내었으며, 인내력은 부적응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27, p < .001$)를 나타내었다. 즉 남아의 경

〈표 6〉 남아의 부적응행동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19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1. 연령	-														
2. 취원기간	.14	-													
3. 기관 변경횟수	-.01	.01	-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4. 연령	.06	.10	.03	-											
5. 교육수준 ¹⁾	-.04	.06	.16	.18*	-										
6. 취업유무 ²⁾	.08	-.13	-.01	-.22**	.01	-									
유아의 기질															
7. 자극추구	.15*	-.03	-.02	-.12	-.11	.04	-								
8. 위험회피	.07	.05	.13	.09	-.06	.00	.30***	-							
9. 사회적 민감성	-.15*	.06	.05	-.10	.22**	.01	.27***	-.07	-						
10. 인내력	-.15*	.03	-.01	-.09	.13	.06	-.34***	-.24**	.20**	-					
어머니의 양육태도															
11. 긍정적 태도	-.19**	.10	-.14	-.05	.16*	.05	-.26***	-.44***	.33***	.32***	-				
12. 부정적 태도	.08	.09	-.17*	-.13	-.10	.06	.29***	.16*	.06	.02	-.17*	-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															
13. 언어발달	.12	.09	-.20*	.03	.07	.10	-.15*	-.18*	.19**	.18**	.34***	-.06	-		
14. 수와 시간 개념	.35***	.06	-.14	-.07	.05	.20**	-.06	-.17*	.07	.10	.27***	-.03	.68***	-	
유아의 부적응행동															
15. 부적응행동	-.03	.07	-.04	-.09	.00	.01	.48***	.25***	.08	-.27***	-.20**	.21***	-.16*	-.15*	-

¹⁾ dummy 변수로 처리하였음(1: 고졸 이하, 2: 대졸 이상).

²⁾ dummy 변수로 처리하였음(1: 취업모, 2: 비취업모).

* $p < .05$, ** $p < .01$, *** $p < .001$.

우 자극추구 성향이 강할수록, 위험회피를 많이 할수록,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부적응행동을 많이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남아의 부적응행동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20, p < .01$)가 나타났으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남아의 부적응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 .21, p < .001$)를 나타내었다. 즉, 남아는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낼수록 부적응행동을 덜 보이며, 어머니가 부정적 양육태도를 나타낼수록 부적응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아의 언어발달 및 수와 시간 개념 발달과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r = -.16, p < .05$; $r = -.15, p < .05$), 언어 또는 수와 시간 개념의 발달 정도가 높은 남아일수록 부적응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아의 부적응행동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여아의 부적응행동 관련변인과 부적응행동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7〉과 같다. 여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연령이 부적응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19, p < .05$)를 나타내어, 여아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적응행동을 덜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여아의 기질과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극추구 성향이 부적응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 .49, p < .001$)를, 인내력이 부적응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32, p < .001$)를 나타내었다. 즉 자극추구 성향이 강할수록,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부적응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여아의 언어 및 인지 발달은 여아의 부적응행동과 어떠한 유의한 상관도 나타내지 않았다.

3. 유아의 성별에 따른 부적응행동에 대한 기질과 양육태도, 언어·인지발달의 상호작용 효과

유아의 부적응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언어·인지발달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 유아 각각 기질과 양육태도, 언어·인지발달 각 영역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점수가 높은 집단(상)과 낮은 집단(상)으로 구분하여, 기질(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또는 인내력 상·하) × 양육태도(긍정 또는 부정 상·하) × 언어·인지발달(언어 또는 수와 시간 상·하)의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 유아 각각 세 요인의 하위영역들 간에 16개씩(기질 4 × 양육태도 2 × 언어·인지발달 2)의 가능한 삼원변량분석 조합 가운데, 남아의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긍정적 양육태도, 수와 시간 개념의 상호작용 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아

〈표 7〉 여아의 부적응행동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15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1. 연령	-														
2. 취원기간	-.01	-													
3. 기관 변경횟수	-.14	-.16	-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4. 연령	-.06	.13	-.13	-											
5. 교육수준 ¹⁾	-.08	.01	-.07	.04	-										
6. 취업유무 ²⁾	.03	-.23**	-.01	-.16	-.07	-									
유아의 기질															
7. 자극추구	-.12	.16*	.00	-.00	.07	-.02	-								
8. 위험회피	.01	.06	.03	.06	.12	.01	.05	-							
9. 사회적 민감성	.10	.06	-.05	-.06	-.02	-.01	.27***	-.16	-						
10. 인내력	.06	-.02	.01	.06	-.06	-.08	-.41***	-.20*	.17*	-					
어머니의 양육태도															
11. 긍정적 태도	-.15	-.01	-.07	-.09	.05	.02	-.19*	-.31***	.31***	.37***	-				
12. 부정적 태도	.12	.04	-.03	.13	-.08	.04	.28***	.02	.05	-.08	-.19*	-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															
13. 언어발달	.32***	-.12	-.10	-.08	.12	.09	-.11	-.05	.21**	.17*	.21**	.04	-		
14. 수와 시간 개념	.43***	-.12	-.19	-.10	.12	.05	-.11	-.13	.13	.13	.11	.08	.65***	-	
유아의 부적응행동															
15. 부적응행동	-.19*	.15	.05	-.11	.15	.05	.49***	.05	.09	-.32***	-.01	.09	-.05	-.05	-

¹⁾ dummy 변수로 처리하였음(1: 고졸 이하, 2: 대졸 이상).

²⁾ dummy 변수로 처리하였음(1: 취업모, 2: 비취업모).

* $p < .05$. ** $p < .01$. *** $p < .001$.

〈표 8〉 남아의 기질(사회적 민감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긍정적 양육태도) 및 언어·인지발달(수와 시간 개념)에 따른 남아의 부적응행동의 심원변량분석

(N=193)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사회적 민감성(A)	43.10	1	43.10	.61
긍정적 양육태도(B)	774.72	1	774.72	11.02***
수와 시간 개념(C)	39.35	1	39.35	.56
A×B	15.76	1	15.76	.22
A×C	58.77	1	58.77	.84
B×C	136.90	1	136.90	1.95
A×B×C	356.92	1	356.92	5.08*
오차	13002.50	185	70.28	
전체	14358.24	192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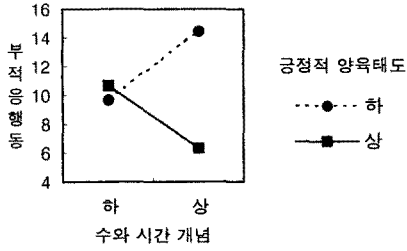
래에서는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남아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긍정적 양육태도, 수와 시간 개념의 주요효과 상호작용 효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주효과가 나타나($F = 11.02, p < .001$),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지닐수록 남아의 부적응행동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아의 사회적 민감성(A),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B), 수와 시간 개념(C)이 상호작용하여 남아의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5.08,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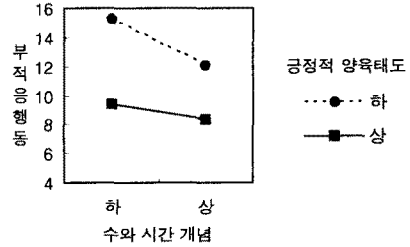
사회적 민감성(A),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B), 수와

시간 개념(C)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각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수와 시간 개념의 상하 집단을 조합한 네 집단의 부적응행동의 평균을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집단($F = 2.81, df = 3, 98, p < .05$)과 높은 집단($F = 4.03, df = 3, 87, p < .01$) 모두 그 결과가 유의하였다.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네 집단 가운데 수와 시간 개념 발달이 빠르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집단($\bar{x} = 6.32$)과 수와 시간 개념 발



(그림 1)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남아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긍정적 양육태도와 수와 시간 개념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2)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남아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긍정적 양육태도와 수와 시간 개념의 상호작용 효과

달이 빠르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지 않은 집단 ($\bar{X} = 14.46$) 간의 부적응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수와 시간 개념 발달이 늦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부적응행동에 차이가 없지만, 수와 시간 개념 발달이 빠른 유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경우보다 긍정적이지 않을 때 부적응행동의 경향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집단의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네 집단 가운데 수와 시간 개념 발달이 빠르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집단 ($\bar{X} = 8.38$)과 수와 시간 개념 발달이 늦으면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지 않은 집단 ($\bar{X} = 15.22$) 간의 부적응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그림 2>에서 보듯이 수와 시간 개념 발달이 늦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지 않을 경우 부적응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의 개별적 특성 및 가정환경 변인과 교육기관 부적응행동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러한 관련성을 근거로 유아의 교육기관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주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유아의 부적응행동의 전반적 경향은 부적응행동의 평균은 8.99($SD = 8.33$)이었으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0점에서 47점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적응행동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성별에 따라 교육기관 부적응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임말자, 최경순, 2003; 현은강, 태진, 2000; Klein, 1982)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아의 성별에 따른 기관 부적응행동의 차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형성에 더욱 협조적이거나, 상호작용 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다(원영미, 1990). 향후 교육기관에서의 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이러한 성별에 따른 연구결과의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전체 연구대상의 유아의 부적응행동과 유아 개별 특성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유아가 자극추구 성향이 강할수록, 위협회피를 많이 할수록,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부적응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기질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중 활동성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극추구 또는 높은 활동성이 교육기관에서의 적응력을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Klein, 1982; Parker-Cohen & Bell, 1988)와는 배치되는 결과이지만, 활동성 및 자극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이영숙, 서소정, 2006; 임말자, 최경순, 2003)는 어느 정도 지지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활동성이 높으며 자극추구 성향이 강한 유아는 교육기관에서 비교적 산만하고(김영희, 1996), 교구이용의 집중력이 떨어져 또래의 활동에 방해줄 수 있다는 홍계옥(2001)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교육기관 부적응행동을 측정하는 주체인 교사에 의해 유아의 자극추구 또는 활동성이 부정적인 면으로 간주되고 있음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기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발생하는 맥락적 상황이나 기질을 측정하는 주체와의 상호작용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유아의 기관 부적응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이영숙, 서소정, 2006). 즉,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인식하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또래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 얼마나 조화로운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부적응과 관련된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 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유아의 기관 부적응에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학력, 직업, 경제적 수준 등과 같은 복합적인 가정환경변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권일선, 1995; 유우영, 이숙, 1998)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만이 유아의 부적

응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지닐수록 그 자녀는 부적응행동을 덜 나타내었으며,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의 자녀는 부적응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은 유아의 부적응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 정도가 높을수록 부적응행동을 덜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인지능력이 사회적 능력을 매개로 하여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연 외 5인(2006)의 연구결과에 미루어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황혜신과 황혜정(2001)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인지능력이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유아의 낮은 인지능력은 여러 가지 친사회적 행동에 장애를 유발하고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인 교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아의 기관 부적응 문제를 야기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 및 개별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모형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면, 유아의 취원기간 및 기관 변경횟수와 유아의 부적응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교육기관 부적응행동과 이전의 기관경험과는 무관하다고 보고한 몇몇 선행연구 결과(Marturano, 198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간과되고 있는 기관의 질적인 차원을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 교사변인, 교사 - 유아간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후속 연구에서 고려되어 유아의 기관 부적응과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규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의 부적응행동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남녀 유아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유아의 성별에 따라 몇 가지 일관되지 않은 결과의 패턴이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질에 있어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 인내력이 부족하거나 자극추구를 많이 할수록 부적응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아인 경우에는 추가로 높은 위험회피 성향을 보일 경우 부적응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위험회피 기질은 예기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 쉽게 지침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행동억제'의 개념과 연관되는데, 일반적으로 행동억제 성향이 높은 유아는 또래간의 사회적 행동이나 적응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Fox et al., 1995; Kagan, Reznick, Clarke, Snidman, & Garcia-Coll, 1984; Kagan, Reznick, & Snidman, 1987). 그러므로 위험회피 기질은 부적응행동의 여러 하위영역 가운데 특히 사회적 위축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에 있어서 여아인 경우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남아인 경우, 어머니가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언어 또는 인지발달이 낮을수록 부적응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아의 결과는 과잉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들이 낮은 인지능력과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국내외 연구결과(김연 외 5인, 2006; McGee, Patridge, Williams, & Silva, 1991)를 통해 유추 가능하다. 또한 유아의 인지능력이 낮은 경우 교사의 지시나 안내를 따르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어려우며, 이는 유아의 부적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유아의 개인 내재 변인으로서 부적응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인지능력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소수의 연구결과(김연 외 5인, 2006)와 맥을 같이하여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구인이 극히 제한적인 '수와 시간 개념 이해' 측면에 국한된 것이므로 유아의 기관 부적응행동과의 관련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신중함을 요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피검 대상인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언어 및 인지능력의 발달적 차이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유아의 연령별 또는 발달적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교사의 평정에 의한 점수 비교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지능력 척도 중의 하나인 표준화된 지능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유아의 인지능력, 친사회적 능력, 유아의 성별에 따른 기관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삼원변량분석에서도 남아의 경우에만 관련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남아의 경우 인지발달 수준이 낮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 때 부적응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인지발달 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 때 부적응행동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이 최적의 조건일 때 부적응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반대로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이 모두 부정적이면 당연히 부적응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남아의 경우, 인지수준 발달 정도의 높고 낮음 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에 의해 부적응행동 점수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유아의 경우 애착도나 의존성이 높고 정서적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어

머니의 양육태도라는 환경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낮은 남아의 부적응행동 경향을 살펴보면, 인지발달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부적응행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지발달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경우보다 부정적일 때 훨씬 더 부적응행동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수준과 부적응행동 간의 상관관계 결과에서는 인지수준이 높으면 부적응행동의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호작용 효과 분석 결과 인지수준이 높더라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면 부적응행동의 경향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성별, 기질, 언어 및 인지발달 등을 포함하는 개인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같은 가정환경 변인은 유아의 기관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아의 경우 기질과 인지수준,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남아의 사회적 민감성 수준 및 인지수준과 상호작용 하여 유아의 기관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남아의 경우 인지수준이 낮더라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면 부적응행동의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양육태도가 낮은 인지능력으로 인한 부적응행동의 위험성을 완충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남아의 경우 인지수준이 높더라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면 부적응행동의 경향이 높아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시사해 줄 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의 기관 부적응행동과 관련해서 어떤 요인이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관련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결과에 따른 결과 패턴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교육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아의 기관 부적응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의 기관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유아의 성별이나 기질, 인지발달 수준과 같은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유아교육 또는 보육기관과 같은 가정 밖의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관 부적응행동 관련 환경 변인으

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만을 고려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기관의 질적 요소, 특히 교사와 유아와의 애착과 같은 변인들을 포함한다면 유아의 부적응행동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유아의 성별과 기질을 포함한 선천적인 특성, 환경변인, 발달 수준 등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변인들과 유아의 부적응 행동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줄 수 있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고명순(1997).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교육인적자원부(2005). 교육통계연보.
 권일선(1995).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민아, 이재신(2004). 어머니 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부적응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아동교육연구, 24(5), 145-166.
 김승국(1990). 적응행동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김 연, 한태숙, 정인희, 박연경, 황혜정, 구현아(2006).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 기질, 인지능력, 사회적 능력 간의 구조모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1(2), 229-250.
 김영희(1996). 기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19-32.
 송진숙(200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관련변인 간의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3), 167-189.
 송진숙, 권희경(200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8(3), 207-225.
 안선희(2002). 유아의 유치원 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1), 201-219.
 여성가족부(2006). 2005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옥경희, 김미해, 천희영(2002). 조절력과 부정적 정서 및 문제 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61-68.
 원영미(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유우영, 이 숙(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양육스트레스원, 사회적 지지,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 이영숙(2006). 유아의 적응행동 및 부적응행동과 관련된 변인 연구: 유아의 성별, 기질, 취원기간,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영숙, 서소정(2006). 유아의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5), 143-155.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말자, 최경순(2003). 유아의 성, 연령, 기질 및 가정환경 자극과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3(1), 189-207.
- 조혜진, 이기숙(2004) 유아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가족 특성, 보육경험 및 기질 변인 분석. *유아교육연구*, 24(4), 263-284.
- 현온강, 태진(2000). 보육환경의 질과 영유아의 적응: 인천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2), 25-42.
- 홍계옥(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2-14.
- 황혜신, 황혜정(2001). 유아의 인지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3), 25-34.
- Constantino, J. N., Cloninger, C. R., Clarke, A. R., Hashemi, B., & Przybeck, T.(2002). Application of the seven-factor model of personality to early childhood. *Psychiatry Research*, 109(3), 229-243.
- Fox, N. A., Rubin, K. H., Calkins, S. D., Marshall, T. R., Coplan, R. J., Porges, S. W., Long, J. M., & Stewart, S.(1995). Frontal activation asymmetry and social competence at four years of age. *Child Development*, 66, 1770-1784.
- Kagan, J., Reznick, J. S., Clarke, C., Snidman, N., & Garcia-Coll.(1984). Behavioral inhibition to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5, 2212-2225.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1987). The physiology and psycholog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1459-1473.
- Klein, H. A.(1982).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adjustment to kindergarten and Head Start. *The Journal of Psychology*, 112, 259-268.
- Ladd, G. W., & Price, J. M.(1987). Predicting children's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58, 1168-1189.
- Marturano, E. M.(1981). Development of complex patterns of behavioral orientation to social and physical stimuli in kindergarten childre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1, 186-97.
- McGee, R., Patridge, F., Williams, S., & Silva, P. A. (1991). Twelve-year follow-up of preschool hyperactive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 224-232.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3). Does amount of time spent in child care predict socioeconomic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74, 976-1005.
- Parker-Cohen, N. Y., & Bell, R. Q.(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to pe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179-192.
- Scarr, S., & McCartney, K.(1988). How people make their own environment: A theory of genotype-environment effects. In E. M. Hetherington, R. D. Parke, *Contemporary readings in child psychology* (3rd ed. pp.5-16). New York: McGraw-Hill.
- Schaefer, E. S., Bell, R. Q., & Bayley, N.(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 83-104.
- Shaw, D. S., Keenan, K., & Vondra, J. I.(1994). Developmental precursors of externalizing behavior: Ages 1 to 3.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55-364.

(2007년 10월 15일 접수, 2007년 12월 7일 채택)